

## 화인코리아 국내 최대 부화장 2개소 인수에 따른 파장과 업계의 반응II

— 조문규 기자

**사육업계:** 화인코리아의 이번 부화장 인수에 따라 사육농가의 동요나 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지 내부적으로 놀라는 분위기고 기존의 사육 방식 하에서는 점점 오리사육이 힘들어 질 것이라는 예상 하에 새로운 사육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중부북부지역의 한 농가는 현재와 같이 개별 사육농가 스스로 새끼오리를 매주 구입하고 매주 출하하는 형태의 낮은 생산성으로 오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별사육농가들이 조직화되어 일정 물량의 오리를 함께 입식하고 함께 출하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시장변화에 따른 사육농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화업계:** 부화업계는 환영과 우려가 교차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기존의 새끼오리 출하 및 대금결제에 대한 부분이 화인의 선도에 현금거래가 보편화되면 경영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이다. 또 기존 계열화업체에서 새끼오리 확보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어 당분간 새끼가격이 호전될 것이란 기대와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새끼오리 과잉생산에 따른 부작용과 소규모 부화장들의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품질 좋은 새끼오리를 생산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통업계:** 기존 화천부화장과 미르네부화

장에서 생산된 육용오리를 구매하지 않고 유통하는 유통업체들은 큰 반항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완전 수직 계열화사업체의 출범에 따라 사육, 유통이 체계화되어 국내 오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반면 중규모이상 화인이 인수한 부화장에서 새끼오리를 구입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은 당장 사업적 차질을 호소하고 있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기존 거래처에 한마디 통보 없이 부화장을 화인 측에 팔아버린 부화장들은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자기와 거래하던 거래처가 최소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부화장을 매도하는 것이 업체의 도의인데 이같은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것은 기 거래처는 망해도 좋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맹 비난하고 있다.

또 화인코리아가 이번 부화장 인수로 자체 부화물량이 국내 전체 새끼생산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기 거래처 부화장과 계약된 물량을 합치면 60~70%의 달한다며 이같은 상태에

서 타 계열화업체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화인코리아가 2개 부화장을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업체로 분양되던 새끼오리 물량은 별도의 조건 없이 일정기간 분양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화인코리아와 새끼오리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이 남아 있는 부화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자유롭게 해줘 타 계열화업체가 새끼오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타 계열화업체들이 향후 새끼오리 물량확보를 위한 신규부화장의 설립이나 기부화장의 새끼생산량을 늘어나지 않게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잉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화인코리아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